

2021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1. 26	대회의실	10명/총 10명	2명	

- 시청자위원 불참자 : 없음
- 방송사 주요참석자 : 사장, 시청자센터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시청자권익 보호 (침해구제)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	-	-	-	-	-	-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	-	-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2건	2건	
보도	<p>최근 시청자들과 비대면 접촉방식의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전의 공개방송 내지는 방청객 프로그램들이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시청자들의 참여를 온라인 스크린 방식으로 비대면 참여를 유도합니다. 스탠딩 연성 뉴스와 같은 경우 멀티 스크린을 통한 뉴스의 소스를 시청자들이 참여케하는 방식을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부분까지 고민해보지는 않았으나 고민해보면 나름 괜찮은 시청자 참여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박성복위원)</p>	<p>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외 각국에 살고 있는 교민 등을 화상 인터뷰로 연결하는 시도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이 늘어나는 만큼 시청자와의 접촉면도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21.1월 조치></p>	'20.12월
보도	<p>중소기업계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상당수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법은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등 3종의 너무나 엄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은 총수가 전문경영인을 두고 경영을 하지만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심층 분석보도의 사례처럼 사회경제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사실만을 전달하는 보도에서 탈피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 보도하면 연합뉴스TV가 여론을 선도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유형의 보도 편성을 확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추문갑 위원)</p>	<p>경제부는 정치부, 사회부와 별개로 새해 들어서만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중기.소상공인 반발 이유는',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반발...'의무다하면 면책해야" 등 6건의 관련 리포트를 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리포트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법의 과도한 처벌 규정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21.1월 조치></p>	'20.1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 및 침해구제 '해당사항 없음'

안 건 내 용	조치(개선)내용	비고
-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해당사항 없음'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해당사항 없음'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 연합뉴스TV는 제5기 시청자위원회의 임기만료(2020년 12월)에 따라 방송법 제87조 제2항 및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에 의거 각계 단체의 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노사합의로 구성된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6기 시청자위원을 선임함.
- 2021년 1월 첫 회의는 위원상견례, 시청자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등 안내, 위원회 회의일정 논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청자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1~2월분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시청의견(가, 나 항목)을 개진키로 함.